

농어촌기본소득 5개월간 206억 소비

연천군,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등 긍정적 변화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5개 마을 선정도

경기 연천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중앙부처에 12회 이상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오이마켓·딸기마켓 등 직거래존을 2회 운영했다.

또한 먼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수요 조사를 거쳐 현재 2개 지역에 설치용 검토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약자 이동비 지원(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장터 운영을 위한 사업자 1곳을 선정해 차당 개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이 5곳으로 늘어난 점이 주목할 만한 결실이다.

신규 공동체사업단인 '연천시니어클럽'은 첫 판매에서 대과 506kg을 달성하며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활동가 교육에 80명이 참여했고,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5개 마을을 선정하는 등 주민 자치와 연대를 통한 지역 살리기 방안들이 점차 뚜렷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총 5개월분이 지급되면서 민생 경

제에도 온기가 들고 있다.

군은 따르면 지난 5월26일까지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 중 약 206억원이 실제로 소비됐다.

박옥일 부군수는 "드러나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농민육산식품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농어촌기본소득의 파급 효과를 더욱 키우고, 시범 사업 이후에도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속해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천=조영철 기자 cho2@siminilbo.co.kr

인천 중구, 국정시책 평가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1억1000만원 확보

전문가 컨설팅등 대응 결실

인천 중구는 인천시 주관 '2026년 국정시책 군·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1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평가는 군·구 국정평가 실적과 합동 평가 대비 사업 수행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특히 구는 2022~2023년 '특별상', 2024~2025년 '질려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까지 총 5년 연속 우수 상을 이룬 경이로, 국정시책 수행 우수 지자체로서의 명성을 재차 입증했다.

구는 그동안 합동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정성지표 연구실), 지표별 담당자 회의(정량 지표 쉐어링),

실적 보고회 등을 총출력 추진하여 지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구 관계자는 "우수상을 비롯한 5년 연속 수상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명중구에서도 국정시책 군·구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문현식 기자 mcs@siminilbo.co.kr

야탑동 어린이공원 3곳 새단장 완료

성남시, 놀이시설 전면교체·탄성바닥 포장 운동시설·정자등 신설·정비... 녹지경관 개선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쑤뜸산·야탑·하늘 어린이공원 3곳의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최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공원 3곳은 조성된 지 32년 이상 지나 놀이·휴게·운동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이용객들의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최근 3개월간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공원 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노후한 미끄럼틀과 그네, 놀이 조합대 등을 철거하고 새 시설로 교체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바닥을 탄성 포장재로 정비했다.

또 정자와 벤치 등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좌식 자전거와 허리 돌리기, 하늘 걸기 등 운동시설도 교체했다.

특히 녹지공간을 정비해 공원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분당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오영석 기자 ows@siminilbo.co.kr



2026년 상반기 진포시 일자리박람회 진행 중인 모습.

김포시, 올해 상반기 일자리박람회 성료

기업 31곳 현장면접... 1000여명 몰려

'A시대 일자리' 특강 콘호음

경기 김포시는 최근 김포생태체육관에서 지역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소형 취업 플랫폼인 '2026년 상반기 김포시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박람회에는 구직자 등 1000여명이 방문해 취업 상담과 현장 면접에 참여

했다. A시대를 선도하는 기업, 인센티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소개가 현장 채용 면접에 참여해 인제 확보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기업중보관'을 처음 운영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본 행사에 앞서 경기도일자리재단 후원으로 진행된 '환일 강사의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변화' 특강에서는 취업 성공 사례

와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취업 준비 전략, 효과적 면접 대응 방법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취업정보관에서는 노동정책센터,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앙내일센터 등 유망기업이 참여해 취업 지원사업과 금융 지원제도, 노무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여러 기관을 순회하며 방문할 필요 없이 한자리에서 맞춤형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았다.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체험관에서는 직무별·기업별 면접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체험하

고 답변을 분석해 면접 역량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밖에 이력서 사진 촬영, 이력서 컨설팅, 인공지능(AI) 부티 분석, 메이킹 컨설팅, 지원서류 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를 도왔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 고교 졸업생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취업 연계와 구·직 지원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포=문현식 기자 mcs@siminilbo.co.kr

인천 서구, 침수 피해예방 선제 대응

하수관로 준설·맨홀 정비

전통시장등 빗물받이 설치

인천 서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극저점 호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 준설, 빗물받이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올해 상반기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배수불량 우려 구간 등을 중심으로 하수관로 세정, 맨홀 정비, 하수관로 준설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도 지역 내 일일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지난 2025년 8월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강남시장, 정서진중양시장, 원흥동 공판지, 서부산업단지 등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 받아 추가 설치 등 하수시설을 정비해 집중호우로 추진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번과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침수 예방 대책 수립 용역도 함께 추진해 침수 원인고 하수시설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별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문현식 기자 mcs@siminilbo.co.kr

다문화가족에 '다정다감' 교육

화성시가족센터

경기 화성시가족센터가 지난 27일 다문화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다정다감'을 두 번째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표현하는 사랑'을 주제로 부부 간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실습 교육이 열렸다. 같은 시간 자녀돌봄교실에서는 '꽃과 나비는 친구'를 주제로 아이들의 직접 글씨와 꽃을 만드는 생애 놀이 활동이 진행돼, 부모들이 온정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 진행된 가족돌봄교실에서는 부부의 자녀가 있는지에 모여 '가족 사랑 도시락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가족들은 함께 힘을 모아 도시락을 싸고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뜻깊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평소에는 아내에게 표현하는 말을 전하기가 어색하고 빠르다"며, 오늘 직접 연습해 다시 마음 문을 열어줬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다채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송윤근 기자 ysg@siminilbo.co.kr

취약계층 36명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수원시, 오늘부터 참여자 모집

우산누리센터등 9개 사업 운영

경기 수원시가 29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 '2026 하반기 수원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36명을 모집한다. 하반기 수원시 지

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아기를 돌 지원사업 ▲효사랑 장수지킴이 만들기 ▲어린이 전문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 ▲아래귀청정소년 및 가족 상담·통번역 서비스 ▲찾아가는 우산누리센터 등 총 9개 사업으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수원시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기간 내 필요 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와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된 참여자는 8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주 5일, 주

25~30시간 근무한다. 시급은 시간당 1만3200원이다. 매일 부대비 5000원이 지급된다. 주휴수당과 연장 유급휴일도 제공된다.

신청 결과는 7월27일까지 사업 부서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노동인력지원정책과 일자리사업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임영민 기자 lim@siminilbo.co.kr

용인신촌초교 통학로등 정비

용인시, 목재계단 철거·교체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용인신촌초 후문 일원의 도시숲길과 통학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용인신촌초 후문 통학로와 어린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다.

구는 지난 2025년 열린 초·중·고 학부모 간담회와 녹색어린이 간담회에서 나온 통학로 안전 개선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월부터 총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폭전동 1297번 지 인근 녹지의 비탈면 계단 3곳을 철거하고 데크(deck) 계단과 난간을 새롭게 설치했다.

또 1억원을 들여 폭전동 1309번 지 일원 산책로 750m 구간의 바닥을 콘크리트 블록과 아자메트로 포장하고, 경사지에는 안전 울타리와 목재 계단을 설치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통학로와 산책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불안전 시설을 철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오영석 기자 ows@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박영철 군수(왼쪽)가 관내현 총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총감독 위촉

인천 강화군이 오는 9월 약 3주간 강화 고려궁지 일원에 세워질 예정인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현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번 사업에서 강화 고려궁지를 비롯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하기 위한 콘텐츠 기획과 연출 전반을 총괄한다.

인천=문현식 기자 mcs@siminilbo.co.kr

2021~2022년 세계유산축전 수일회성 총감독 등을 역임한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분야 전문인사

권 총감독은 국가유산이 지닌 역사성과 장소성을 현대적인 콘텐츠로 재해석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번 사업에서 강화 고려궁지를 비롯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하기 위한 콘텐츠 기획과 연출 전반을 총괄한다.

인천=문현식 기자 mcs@siminilbo.co.kr

부천시, 경기 생활다양성 보전 프로젝트 개최

경기 부천시는 최근 가톨릭대학교 국제관 실내체육관에서 시민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기 생활다양성 보전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의 발걸음으로 걷는 생애'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RCE인사들과 RCE도봉이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도권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성안구 생활다양성재단 연구원의 '연결된 시민, 회복되는 생애'를 실천하는 기후위기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대정3기신도시 개발구과 부천역역 공공주택자극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다양성 견장 탐사가 진행돼 지역 자원 현황을 공유하고 친환경 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체험과 생활다양성 보전 체험부스도 운영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시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톨릭대학교가 협력한 민·관·학 거버넌스 사례를 선보이며 의미를 더했다.

인천=문현식 기자 mcs@siminilbo.co.kr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근무환경 위험성평가

경기 하남시는 환경기초시설내 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와 함께 '2026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와 합동으로 현장용 직접 점검하며 ▲개인·질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 ▲주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점검 ▲고위험 기계·장비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주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현장 점검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해 폐기물 처리시설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실시설을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대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전영환 기자 jyw@siminilbo.co.kr

오산시, 올해 첫 전문수퍼비전 회의

경기 오산시 희망복지회와 최근 시청 물향기실에서 '2026년 제1회 전문수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수퍼비전회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현장 실무자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사회복지학 박사인 고대연 전문수퍼비전자를

비롯해 희망복지회와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기관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한 고난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안전, 주거, 건강, 금융 등 주요 위기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입 방향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정 희망복지회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이 복합적인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민정훈 기자 mjh@siminilbo.co.kr

안양시 인력원동, 학의천 일대서 민·관 플로깅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력원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 저녁에 기업(취플레트론, 동 행정복지센터)과 함께 학의천 일대에서 플로깅(Flogging) 활동을 실시했다.

주민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기업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역 환경을 정화하고 공동체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인력원동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복지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일일 솔 프로젝트(In-Sol Projct)'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1인 가구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학의천을 함께 걸으며 길가에 버려진 담배꽂이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했다.

송영문 인력원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직접 함께 걸으며 정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안양=송윤근 기자 ysg@siminilbo.co.kr